



보도	2023.8.23.(수) 조간	배포	2023.8.22.(화)		
담당부서	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	책임자	팀 장	김재갑	(02-3145-8050)
		담당자	선 임	김민호	(02-3145-8052)

'23.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[잠정]

1. 개 요

- '23.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)은 0.35%로 전월말(0.40%) 대비 0.05%p 하락* [전년 동월말(0.20%) 대비 0.15%p 상승]

* 6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(전월말 대비) :

('20.6월) △0.09%p → ('21.6월) △0.07%p → ('22.6월) △0.04%p → ('23.6월) △0.05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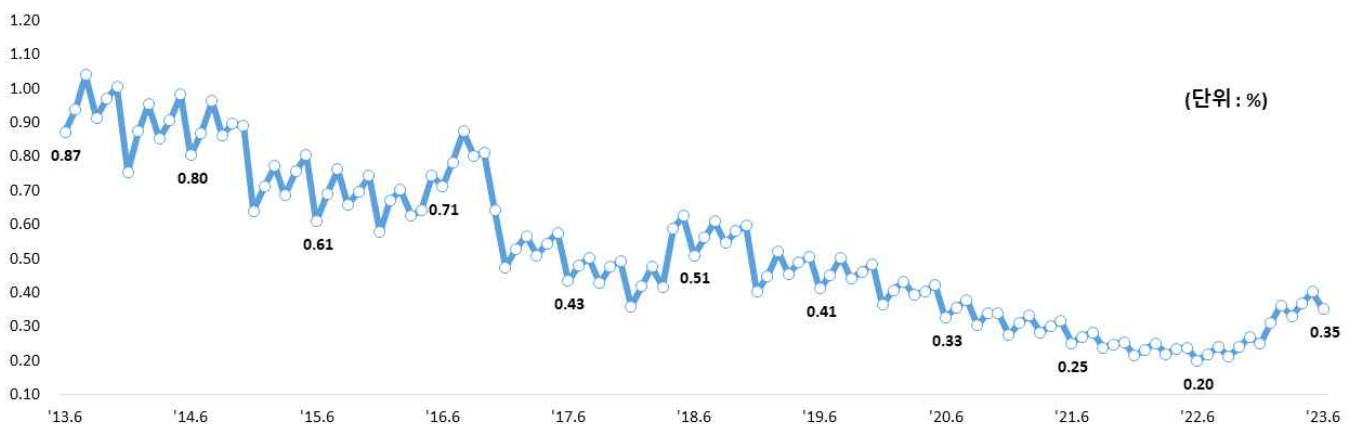
- '23.6월중 신규연체 발생액*(2.0조원)은 전월 대비 0.1조원 감소하였으며, 분기말 상·매각 등으로 연체채권 정리규모*(3.1조원)는 전월 대비 1.8조원 증가

	('21.6월)	('22.6월)	('23.1월)	('23.2월)	('23.3월)	('23.4월)	('23.5월)	('23.6월)
* 신규 연체채권 규모(조원):	0.8	0.9	1.9	1.9	1.7	1.8	2.1	2.0
연체채권 정리규모(조원):	2.1	1.6	0.6	0.8	2.4	0.9	1.3	3.1
연체채권 증감규모(조원):	△1.3	△0.7	1.3	1.1	△0.7	0.9	0.8	△1.1

- '23.6월중 신규연체율('23.6월중 신규연체 발생액/'23.5월말 대출잔액)은 0.09%로 전월(0.10%) 대비 0.01%p 하락* [전년 동월(0.04%) 대비 0.05%p 상승]

* 신규연체율(%) : ('22.6) 0.04 → ('23.2) 0.09 → ('23.3) 0.08 → ('23.4) 0.08 → ('23.5) 0.10 → ('23.6) 0.09

원화대출 연체율 추이



※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,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

2. 부문별 현황

- (기업대출) '23.6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(0.37%)은 전월말(0.43%) 대비 0.06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22%) 대비 0.15%p 상승]
- 대기기업대출 연체율(0.11%)은 전월말(0.12%) 대비 0.01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14%) 대비 0.03%p 하락]
 - 중소기업대출 연체율(0.43%)은 전월말(0.51%) 대비 0.08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24%) 대비 0.19%p 상승]
 - 중소기업인 연체율(0.45%)은 전월말(0.55%) 대비 0.10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30%) 대비 0.15%p 상승]
 -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(0.41%)은 전월말(0.45%) 대비 0.04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16%) 대비 0.25%p 상승]
- (가계대출) 가계대출 연체율(0.33%)은 전월말(0.37%) 대비 0.04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17%) 대비 0.16%p 상승]
- 주택담보대출 연체율(0.22%)은 전월말(0.23%) 대비 0.01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10%) 대비 0.12%p 상승]
 -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(신용대출 등)의 연체율(0.62%)은 전월말(0.75%) 대비 0.13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34%) 대비 0.28%p 상승]

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구 분	연체율 시계열 ('13.6월~'23.6월)	'20.6월	'21.6월	'22.6월 (A)	'23.5월 (B)	'23.6월 (C)	증감	
							전년동월 (C-A)	전월 (C-B)
기업대출		0.39	0.32	0.22	0.43	0.37	0.15	△0.06
대기업		0.21	0.37	0.14	0.12	0.11	△0.03	△0.01
중소기업		0.44	0.31	0.24	0.51	0.43	0.19	△0.08
중소법인		0.56	0.42	0.30	0.55	0.45	0.15	△0.10
개인사업자		0.29	0.18	0.16	0.45	0.41	0.25	△0.04
가계대출		0.25	0.17	0.17	0.37	0.33	0.16	△0.04
주택담보대출		0.17	0.11	0.10	0.23	0.22	0.12	△0.01
가계신용대출등		0.42	0.30	0.34	0.75	0.62	0.28	△0.13
원화대출계		0.33	0.25	0.20	0.40	0.35	0.15	△0.05

*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

3.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

- 금년 상반기중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, 2분기(전분기比 +0.02%p)는 연체정리 확대 등으로 1분기(전분기比 +0.08%p) 대비 분기중 상승폭이 축소*되는 모습

* 연체율(%):('22.12) 0.25 →('23.1) 0.31 →('23.2) 0.36 →('23.3) 0.33 →('23.4) 0.37 →('23.5) 0.40 →('23.6) 0.35

- 현재까지 은행권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('19.12월말 0.36%) 수준 및 과거 장기 시계열*(0.78%)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

*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'10년~'19년 기간중 연체율 월평균

- 다만, 글로벌 경기둔화 및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현재의 연체율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연체·부실채권 정리 확대 등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지속 유도할 예정
- 월별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적극적인 연체·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건전성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,
-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계획